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사회)

우리는 노동을 제공하면 으레 그에 합당한 크기의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 만족을 경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만족을 경험한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보상의 크기가 합당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크게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기업의 이윤에서 임금으로 얼마를 배분받느냐가 '배분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면, 얼마의 임금을 배분받는지 결정되기까지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는 '절차 공정성'의 문제이다.

배분 공정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업적 등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보상이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타인이 받은 보상과 비교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성 이론을 주창했던 아담 스는 다음의 산술식을 활용해 설명했다.

$$\frac{\text{산출}(P)}{\text{투입}(P)} = \frac{\text{산출}(O)}{\text{투입}(O)} \quad (P=\text{자신}, O=\text{타인})$$

이 산술식에서 '투입'은 개인의 노력, 업적, 기술, 연령, 교육, 경험 등을 가리키며, '산출'은 조직이 개인에게 주는 보상으로 임금, 후생 복지, 승진, 지위, 권력 등을 포함한다. 아담 스는 개인이 이러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해 자신이 배분받은 것에 만족하는 반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지각해 불만이나 좌절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공정성과 불공정성의 지각은 개인의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배분 공정성은 '내부 공정성'과 '외부 공정성'으로 구분된다. 내부 공정성은 조직 내부의 공정성으로 조직의 직무·직능·근속 및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제도를 잘 갖추어줌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다. 내부 공정성의 확보는 개인의 만족과 그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 공정성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이 다른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에 비해 공정한가에 관한 것이다. 외부 공정성의 확보는 조직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관한 절차 공정성은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 수준의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고충 처리 절차나 이의 제기 절차가 있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배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배분을 통해 보상을 받는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에 부합되게 이루어지면 절차 공정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7. 밑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5%

- ① 투입에 비해 산출이 클수록 '배분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 ②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배분 공정성'을 지각할 수 있다.
- ③ 자신의 보상이 합당한지를 판단할 때 '공정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④ 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관련이 있다.
- ⑤ '외부 공정성'은 조직의 인력 수급과 대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적절한 것?' : 이 글의 핵심은? 중심내용?
 → '적절하지 않은 것?' : 이 중 관외하는 선지는?

18. 밑글로 보아,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의 핵심인 점과 자문드러들어가기!! 12% [3점]

<보기>
 Γ은행과 Λ은행에 동시에 합격한 Υ씨는 동일한 일을 해도 Λ은행이 Γ은행보다 평균 임금이 높고 후생 복지도 좋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Γ은행에 입사했다. Γ은행이 Λ은행보다 선진화된 인사 고과 시스템을 갖추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가 Λ은행보다 잘 갖추어져 있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승진을 시켜주기 때문이었다. → 'Γ은행이 절차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

- ① 직원들의 평균 임금과 후생 복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Λ은행보다 Γ은행의 '외부 공정성'이 더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
- ② 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Γ은행보다 Λ은행의 '내부 공정성'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11%)
- ③ Υ씨가 Γ은행을 선택한 것은 평균 임금보다 후생 복지를 더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
- ④ Γ은행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업무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Λ은행보다 '절차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⑤ Υ씨가 근속 연수와 상관없는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Γ은행을 선택한 것은 '배분 공정성'보다 '절차 공정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야.

절차 공정성 : 배분 공정성의 전제 반대
 "주관 개입하지 말라! 정답은 자문에 있다!!!"

19.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68%

- ①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때 개인의 주관만 많이 개입된다는 말로군. X
- ② '배분 공정성' 없이 '절차 공정성'만 확보되면, '공정성' 확보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말로군. (14%)
- ③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배분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로군. (11%)
- ④ '배분 공정성'이 '절차 공정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는 말로군.
- ⑤ 배분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대해 '공정성'을 지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말로군.

㉠ : 공정성이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절차공정성이 필요!

국어 영역(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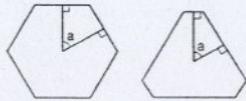
7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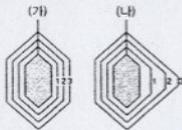
광물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단위 물질로서 특징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다. 광물의 결정 구조는 그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일정하게 배열된 양상이다. 같은 광물일 경우 그 결정 구조가 동일하며, 이러한 결정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규칙적인 겹모양인 결정형(crystal form)도 동일하다. 그런데 실제로 광물들의 결정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니콜라우스 스테노는 등산길에서 채집한 수정의 단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에 궁금증이 생겼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는 수집한 수정의 단면도를 그려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수정 결정의 모양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맞닿은 결정면들이 이루고 있는 각은 <그림1>의 a와 같이 항상 일정하다는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1> 면각 일정의 법칙

스테노는 같은 광물의 결정일 경우 면각이 일정해지는 이유가 ① 결정 내부의 규칙성 때문일 것이라 짐작했다. 당시만 해도 그 규칙성의 이유가 되는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 그가 죽은 뒤 X선이 발견되고 나서야, 결정 모양이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내부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림2> 결정의 성장 과정(결정의 수직 단면)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결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결정에 주입되는 물질의 공급 정도에 따라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광물의 작은 결정 두 개를, 같은 성분을 가진 용액 속에 대달아 놓았다고 하자. 이때 (가)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사방에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오른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해 놓으면 (가) 결정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이상결정)으로 성장하는 반면, (나) 결정은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기형결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 결정의 오른쪽 결정면은 다른 결정면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나갈수록 결정면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의 공급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결정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가)와 (나)는 같은 광물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면각은 서로 같다. 이처럼 같은 광물의 결정은 그 면각이 같다는 사실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결정들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면각 일정의 법칙은 광물의 결정을 판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현대 광물학의 ③ 초석이 되었다.

20.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82%

- ① 면각 일정의 법칙은 무엇인가? 2분
- ② 면각 일정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3분
- ③ 광물별 결정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분
- ④ 결정면의 성장 속도는 결정면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4.5분
- ⑤ 같은 광물의 결정이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5분

21.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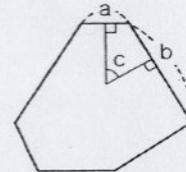
- ① 스테노는 ㉠을 추측하기는 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 ② 스테노는 ㉠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을 입증했다.
- ③ ㉠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X선이 개발되었다.
- ④ 스테노는 ㉠의 다양한 양상들을 비교하여 분류 체계를 만들어 냈다.
- ⑤ ㉠을 분석한 내용이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핵심개념을 진짜 파악한 것 맞니? 4분

22.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6% [3점]

<보기>

어떤 광물이 성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평 단면을 보이는 결정이 되었다. (단, 물질 공급 이전의 결정의 초기 모양은 정육각기둥으로 가정하고, 결정의 성장 과정에서 물질 공급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배제한다.)



- ① 지금까지와 같이 물질 공급이 지속된다면, a면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18%)
- ② 현재의 결정 모양은 a면보다는 b면으로 물질이 더 많이 공급된 결과일 것이다.
- ③ 모든 방향에서 물질이 고르게 공급되었다면, a면과 b면의 면적은 같았을 것이다.
- ④ 현재의 결정이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a면과 b면이 이루는 각 c는 항상 같을 것이다.
- ⑤ 결정의 모양이 달라졌지만,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이 가진 규칙성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다.

면이 좁아 ← 성장 속도가 빠름

물질의 공급량이 더 많음

23.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93%

- ① 지붕돌
- ② 고임돌
- ③ 버팀돌
- ④ 운운돌
- ⑤ 주춧돌

* <보기>에서는 핵심만 추출하라!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인문)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의 실천은 동기에서 비롯한다. 이 점에서 윤리학의 핵심 과제 두 가지가 도출된다. 하나는 도덕 원칙이나 규칙 혹은 윤리적 행위의 가치를 입증하는 정당화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도록 행위를 유인하는 동기화 과제이다. 정당화 과제는 무엇이 정당하며, 왜 정당한가를 따지는 일이며, 동기화 과제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인도하고 유인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일이다. 이들은 윤리학의 쌍두마차인데, 시대에 따라 윤리학이 주력한 과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근대 이전의 윤리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정당화의 기반을 특정한 형이상학에 두고 있다. 또한 이 시대의 윤리학은 특정한 공동체를 현실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정치적, 법적인 관행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은 이 같은 전통과 관행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의거한 규범과 윤리를 전제로 한 동기화에 주력하였다.

윤리학이 정당화 과제보다 동기화 과제에 전념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윤리 체계는 관행이나 관습에 안주하면서 교조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화, 권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서정연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정당화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안정된 공동체가 해체되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그 질서를 유지할 새로운 규범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가 전연으로 부상하게 된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개인들을 서로 묶어 주고 그들간의 갈등을 완화해 주던 유대가 점차 약화되고, 상업적인 인간관계가 점차 늘어났다. 그에 따라 ㉠ 개인주의가 우세해짐으로써 정당화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근대 이후의 윤리학이 의무, 율음, 책무 등에 대한 정당화 과제에 골몰해 온 결과, 윤리적 삶에서 행위의 동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다.

어떠한 도덕적 행위도 정당화 측면과 동기화 측면을 갖는 만큼 윤리학은 모든 도덕적 영역에서 정당화와 동기화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때 모든 덕행은 언제나 정당화의 관점에서 반성되고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의무는 현실성 있는 동기화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24.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

- ① 도덕적 편향성이 나타나는 원인 분석 (15%)
 - 각 시대별 윤리학적 논쟁을 중심으로
- ② 가치와 동기의 관계에 대한 비판과 성찰
 - 보편적 윤리학의 한계를 중심으로
- ③ 교조적인 윤리학이 등장한 배경 설명
 - 윤리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을 중심으로
- ④ 윤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 기존 윤리학이 지닌 편향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 ⑤ 윤리학과 인간의 삶 사이의 상관관계 고찰
 - 도덕적 가치의 변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65%

<보기>

임진왜란 이후 조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유교적 윤리 의식은 땅에 떨어졌다. 이에 조선의 임금인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각 지방에 배부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임진왜란 중에 목숨을 바친 사람을 비롯하여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통해 충, 효, 예라는 유교적 이념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후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여 피폐해진 풍인 도의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

- ① 조선 사회의 윤리 체계는 정당화의 기반을 유교적 이념에 두고 있었군.
- ② 광해군 때는 전통적 권위에 의거한 규범을 전제로 한 백성들의 동기화가 시도되었군. (10%)
- ③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간행한 것은 동기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군. (11%)
- ④ 충, 효, 예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한 조선 시대 윤리 체계의 핵심 개념이었겠군.
- ⑤ 충신, 효자, 열녀의 덕행을 찬양한 것은 새로운 윤리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군.

X → 동기화 과제

26.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

- ① 윤리학에서 개인의 실천을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 ② 기존 윤리학에서 동기화 과제보다 정당화 과제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10%)
- ③ 사람들이 윤리적 행위에서 의무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 ④ 특정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학과 그에 관련된 윤리 체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 ⑤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윤리학과 그에 관련된 윤리 체계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예술)

13세기 유럽 미술은 비잔틴 미술의 영향 아래 있었다. 비잔틴 미술은 종교화의 본모습을 제시하였다. 당대의 화가는 성서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를 배치했다. 인물은 좌우대칭이 분명해 고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고, 아무 감정도 찾아볼 수 없는 표정과 작위적인 시선을 가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이와 구별되는 회화가 나타났다. 새로운 회화의 선구자는 조토 디 몬토네였다. 조토는 평면적 작품 위주였던 당시에 입체감을 표현하여, 고대 로마 미술을 마지막으로 천여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회화에서의 공간을 회복시켰다. 또한 인물의 표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표정 묘사와 시선 처리에서 생생한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 심지어 신격화되어 왔던 대상까지도 사실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려냈다.

그렇다면 조토는 어떻게 당대 다른 그림보다 입체적이고 사

실감 있는 회화를 이루어냈을까? 그 기반에는 사실적인 관찰이 있었다. 일례로 이탈리아의 아레나 성당에 그려진 「동방박사의 경배」에 나타난 별을 들 수 있다. 그는 헬리 혜성의 모습을 관찰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렇듯 그는 사물과 인간에 대해 관찰한 것을 그림에 반영해 내었다.

또한 조토는 구도를 면밀하게 고려함으로써 사실적 경향을 강조하였다. 당시의 화가들은 평면의 세부적 묘사에 치중하였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도록 하였으며, 앞뒤 인물의 크기를 비슷하게 그렸다. 그러나 조토는 뒤로 갈수록 인물과 사물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원근법을 사용하였고, 앞과 뒤의 인물이나 사물이 겹쳐지도록 표현하는 중첩법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의 간격이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거리와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의 그림은 여전히 중세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미묘하고 강렬한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화가였고, 이러한 그의 업적은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 ③ ㉔에서 볼 수 있는 분명하고 생생한 시선 처리는 중세 종교화에서 이어온 인물 표현의 방식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㉔에서 인물들이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당시의 그림들과 대비되는 새로운 구도를 읽어낼 수 있군.
- ⑤ ㉔에서 슬퍼하는 사람의 자세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화가가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 관찰해 온 결과라 할 수 있군.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讀書)

(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독서할 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이 있다면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을 하면 남고,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고 해석하면, '앎과 깨달음'이 더욱 자라나서 말과 행동이 두루 통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앎과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은 꼭 막히게 되어, 얻었다 해도 반드시 다시 잃게 마련이다.

성현(聖賢)들은 도리를 닦고 언론과 법규를 바로 세워 천하와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성인의 말을 외우고 그 뜻을 깊게 생각해 볼 때에는 가슴에 가득 쌓여 있는 기운과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부딪친 다음에야 그 뜻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얻고 난 다음에는 또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장차 도리를 전하고 말을 풀어 놓아 '앎과 깨달음'을 일으키고 말과 행동을 두루 통하게 해서 길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치와 뜻은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한 사람의 지식만으로는 두루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얻은 지식으로 미루어서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깨달음을 발휘해 말을 가리고 생각을 깊게 해야 한다. 이는 성현의 마음이고 학문과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 윤희, 「독서기서(讀書記序)」-

27.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75%

- ① 고대 로마 미술은 회화에서 공간감을 나타냈다.
- ② 르네상스 미술은 비잔틴 미술의 원근법을 계승하였다.
- ③ 비잔틴 미술은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들을 사용했다.
- ④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평면적인 회화가 대부분이었다. (P-X)
- ⑤ 13세기 유럽 회화에 묘사된 인물은 좌우대칭이 분명해 고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28. 뒷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그림을 감상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89%

< 보 기 >

① 뒤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② 비통한 표정으로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③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④ 뒷모습을 보이고 앉은 사람

⑤ 슬픔에 겨워 팔을 벌리고 있는 요한

- 조토, 「그리스도의 애도」-

- ① 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중첩법으로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㉒에서 성모 마리아와 같이 신격화되어 온 대상에도 인간적인 감정을 불어넣은 것을 찾을 수 있군.

(나) 독서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사물에 유혹당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연구하여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마침내 자신이 행할 도리가 분명히 나타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천하의 도(道)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할 때 독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옛 성인과 현자가 마음을 쓴 발자취와 세상만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및 경계해야 할 내용이 모두 책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독서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책을 대해야 한다. 마음을 한곳으로 집중하고 뜻을 다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사고하고,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읽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글과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지 입으로만 읽고 마음속으로 얻지 못하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다. 이렇다면 무슨 이로움과 유익함이 있겠는가?

- 이이, 「독서(讀書)」-

29. (가)와 (나)의 글쓴이가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독서'의 목적은? 93%

- ①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을 비판하는 것
- ② 휴식을 취하면서 정서적 안정이나 즐거움을 얻는 것
- 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 ④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 ⑤ 글속에 담긴 의미를 깨우쳐 세상의 이치에 통하게 되는 것

30. (가), (나)를 읽고 '독서'에 대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3%

- 독서를 통해 '앎과 깨달음'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①
- 독서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며, 생각한 것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②
- 온 마음을 쏟아 독서에 집중해야 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③
- 독서할 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며, 깨달은 바가 있으면 실천해야 한다. ④
- 독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서 상황에 맞게 읽을 책을 선정해야 한다. 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극문학(극본)**

[앞부분 줄거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 웃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된다.

S#1 말형 우리들이 가 버리면 여기 남은 형제자매 그 누가 보살펴 주겠소? 기-㉠

노파·남자3 그건 염려 말아. 우리가 정성껏 보살펴 주겠네.

둘째 우린 몰라 못 가겠소. 기-㉡

노파·남자3 몰라 못 간다니.....

둘째 우리 모친 어느 곳에 계실는지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살았으면 이승 있겠고 죽었으면 저승 있겠지.

막내 우린 당장 떠나겠소. 떠날 때가 분명하듯 돌아올 때 분명하게 기약이나 정합시다. 십 년 기약 어떻게겠소? 기-㉢

노파·남자3 (치마에 모은 노갯돈을 막내에게 준다.) 십 년 기약 그제 좋군! 자네들이 그때까지 꼭 찾아서 데려오게.

말형 막내 네가 바보구나! 노갯돈을 받았으니 안 떠날 수 있겠느냐! 기-㉣

둘째 (말형을 붙잡고 탄식하며) 차마 못갈 이승 길을. 몰라 못갈 저승길을 울며불며 가야겠네! 기-㉤

막내 (일곱 자식들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몸 성히들 잘 계시오. 우리 어머니 꼭 찾아서 모셔올 테요.

말누나 장하구나. 우리 막내! 십 년 기한 자기 전에 꼭 찾아서 모셔 오나라!

(열 자식들이 세 자식들과 일곱 자식들로 나뉘어 이별한다. 말형, 둘째, 막내는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구경꾼들도 퇴장한다. 일곱 자식들은 무대 후면으로 몰려간다. 말누나는 무대 가운데서 세 자식들이 나간 방향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이 별의 서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말누나,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 관객석 쪽으로 다가와서 말한다.)

말누나 나는 자꾸만 손을 흔들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막내가 멀리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건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죠. 가난한 어린 시절, 나의 슬픈 기억 속에는, 가족과의 이별이 있어요. 노오란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던 황톳길, 그 바깥바깥 메마른 황톳길을 오빠들이 떠나가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말형 울지 말고 십 년만 기다려라! 그럼 성공해서 돌아올게! 말누나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노려서, 도망치듯이 몰래 집을 떠나가는 오빠들..... 난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이 떨어져라 떨어져라 흔들었죠.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무대 가운데로 가서 세 자식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하여 외친다.) 가는 듯이 돌아들 오소! 기다리는 마음. 미치고 달치겠네! 32-㉠

S#2 <중략>의 등장 (중략) 말형 여기가 세 갈래 길이구나. 그동안엔 우리 함께 다녔으나, 지금부터는 제각기 길을 택해 가기로 하자. 기-㉡ 둘째 (표지판을 소리 내어 읽는다.) 서울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산으로 가는 길..... 형님은 어느 길로 가시려오?

말형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우리 어머니는 도망간 게 여실하다. 열 명 자식 키우느라 그 고생이 막심한데 평생 수질하기 또 얼마나 힘들었겠니? 답답한 맘 풀어보려 서울 구경 갔을 테니, 난 이쪽 서울로 가는 길을 택하겠다.

둘째 나도 별의별 생각 다 했소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는 죽은 것 같소. 혹시나 바다에는 용궁 있어 저승과 통한다 하니,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택할 테요.

말형 막내 너는 어쩔 거냐? 막내 나도 여러 생각 다 했소만, 우리 어머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소. 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승도 살피보고 저승도 살피볼 테요. 기-㉢

말형 네 생각이 그리하면 저쪽 산으로 가는 길이 네 길이다. 이제 각자 길로 가기 전에 노갯돈을 나눠 갖자. (노갯돈을 삼등분으로 나눈 다음, 자기 몫에서 조금 덜어 막내에게 준다.) 막내야, 너는 어리니 노갯돈을 더 가져라.

막내 아니요, 형님. (자기 몫에서 덜어내 말형과 둘째에게 준다.) 나는 젊으니 형님들이 더 가지시오.

둘째 (말형과 막내에게 자기 몫을 덜어주며) 형님도 더 가지시고, 막내도 더 가져라. 기-㉣

말형 우애 깊은 우리 형제, 여기에서 헤어지다니..... 십 년 기한 잊지 말고 다시 만나자! 기-㉤

둘째 형님이나 잊지 마요! 막내야, 너도 잊지 마라!

말형 (길을 나눠 떠나는 둘째와 막내에게 손을 흔들며 전송하며, 목이 맨 소리로) 너희들, 어머니를 꼭 찾아서 모셔 오나라! (말형, 관객석 쪽으로 다가와서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

감정의 직접적 제시

극문학의 과잉 표현 반복과 과잉하여 사건에 압력을 부여하고 있다

각 장면의 극중 사건의 선명 대조

극장' 표현 반복